

### Contents

1. 회장 칼럼
2. 2막에 들어가며-정년퇴임 교수 칼럼
3. 대한지리학회 소식
4. 전문학회 및 교사모임 소식
5. 학과 소식
6. 신간 소개

### 회장 칼럼

## 공감의 대한지리학회, 통섭의 지리학을 위하여

이용우(대한지리학회장,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정점을 지나 감소할 것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2년 전인 2017년 추계에 비해 3년이 당겨져서 인구절벽이 눈앞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구오너스는 경제와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학령인구는 2020년에 무려 6만 명이 감소하고, 대학진학 대상인 18세 인구는 2017년 61만 명에서 2030년 46만 명으로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2021학년도부터 대학입시 지원자 수가 대입 정원에 크게 못 미쳐 미달사태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대입 학령인구 절벽으로 인하여 대학 간에 그리고 전공별로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지리학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리학의 융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 간 대한지리학회는 연례학술대회 및 지리학대회 개최, 학술지 우수 평가, 지리올림피아드 개최, 한중일지리학대회 개최 및 아시아 지리학회 참여, 학회 창립 70주년 행사 및 70년사 편찬, 세계지리학대회 개최 등으로 내실과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비전회의,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등에 핵심 학회로 참여하여 국정 방향 제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지도집, 점자지도, 지리지, 지명정보 및 조사, 동해 지명, 독도 사진, 서울역사아카이브, 산업화, 신도시 등과 관련된 학술용역 추진으로 지리학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 모두 회원님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업적들입니다. 선대 회장님과 집행부 그리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간 대한지리학회가 거둔 성과에 누를 끼치지 않으면서 학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열정을 최대한 결집하여 회원 각자의 연구 성과와 사회 기여가 학회의 발전을 이끌고, 학회의 발전이 회원 개개인의 활발한 학문적 활동으로 이어져서 지리학의 경쟁력과 유용성이 커지는 선순환 고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대한지리학회와 회원 그리고 지리학 학문 상호간의 선순환 발전을 위해서는 공감과 통섭이 중요합니다.

대한지리학회는 공간과 국토 문제에 대하여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회원 개개인이 전문적 활동을 기반으로 서로에 대한 소통과 이해를 높여서 협업할 때 가능합니다. 지리학은 그 자체로 유용성이 높은 학문일 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과 협업을 통해 더 발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는 상호 간의 물론, 인접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과학과 협업할 수 있고, 계통지리와 지역지리 그리고 지리교육은 공간에 대한 전문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리학은 국토 및 세계에 대한 다양하고 탁월한 분석방법과 관점을 통해 공간과 공간적 이슈에 대한 통섭(統攝, consilience)적 연구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제34대 집행부는 공감의 대한지리학회, 통섭의 지리학을 위하여 다음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지역 및 공간문제와 정책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대안 모색으로 사회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지리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과 위상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및 저성장 극복, 지방 중소도시 공동화 대응, 일자리 창출, 삶의 질 개선, 국토환경 보전, 국토 및 지리교육, 통일 한반도 구상 등 사회이슈에 대하여 지리학적 분석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논의가 가능하고 지리학의 통섭적 접근이 강화되도록 연구모임과 세미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학회 외부와의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리학자 모두에게 열린 학회를 만들어 학회를 통해 지리학자가 만나 소통하고 협업하여 서로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리학의 위기와 도전은 세부전공과 직종 그리고 근무처에 관계없이 모든 지리학자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나누고 배는 선행법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합하고 더하는, 서로 포용하고 공감하는 학문, 학회, 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포용과 공감이 있어야만 지리학이 기존 장점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통섭적 접근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지리학은 위기를 극복하고 융성할 수 있습니다. 대한지리학회와 통합과 통섭에 앞장서겠습니다. 연례학술대회, 지리학대회, 한중일 지리학대회, 특별심포지움, 각종 세미나 등의 개최와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들과는 물론이고 전문 지리학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회의 저변을 넓히고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학회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전문성과 대중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리학이 되도록 노력하고 지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학회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학회의 재정적 기반과 함께 인적 기반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중견 지리학자는 물론이고 신진 지리학자의 활동을 적극 지원, 홍보하겠습니다. 지리학의 저변 확대와 기반 강화를 통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지리학의 수요를 넓히고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75년을 이어오는 대한지리학회의 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동시에, 지리학 선구자 및 선대 회장님 그리고 회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사명감과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와 제34대 집행부는 지리학의 융성과 회원 여러분의 학문적 발전을 이끄는 대한지리학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감의 대한지리학회, 통섭의 지리학을 위하여 회원 여러분의 충고와 질책 그리고 격려와 참여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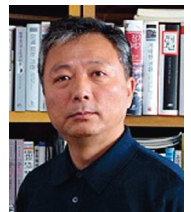
## 2막에 들어가며-정년퇴임 교수 칼럼

### 지리학자로서의 정체성

최병두(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명예교수)

#### I.

지난 30년 동안 사용해 오던 연구실을 비우기 위해 책장에 꽂혀 있던 책들과 책상 서랍이나 컴퓨터 내용물, 그 외 소소한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무려 한 달이 걸렸다. 각종 학술지와 보고서, 오래된 영인본 책들은 우선 처분의 대상이 되었고, 연구 성과물이나 여타 작성한 문건들의 인쇄물도 대부분 버려졌다. 그래도 남은 책들과 물건들의 분량은 만만찮지만, 집으로 가져갈 짐은 반 이상 줄어들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다.



연구실을 비우면서 느끼는 섭섭함은 그 동안 연구실 내에 쌓아둔 책들과 각종 물건들을 이제는 연구실 밖으로 버리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제는 내 자신이 이 책들이나 물건들과 함께 연구실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연구실에 나오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강의와 연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마도 더 이상 원고 청탁도 없을 것이고, 외부 활동 초창도 없을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매일 이루어졌던 일상생활의 반복이 이제는 단절되는 것이다.

1989년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에서 교수 생활을 하게 된 이후, 캠퍼스가 이전하면서 한번 연구실이 바뀌긴 했지만, 거의 매일 연구실에 와서 하루를 보내고 집을 돌아가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이 연구실에서 보낸 30년은 생애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이 30년 동안 때로 학술대회 발표나 그 외 외부활동 또는 개인 문제 등으로 연구실을 비우기도 했지만, 매 학기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강의실에서 수업을 했고, 몇 편의 논문을 쓰거나 책을 출판하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이런 일들을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더 이상 섭섭해 하지 않아도 된다. 정년퇴직은 수단으로서 학문하기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이러한 억압의 장으로서 대학 연구실에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섭섭하고 아쉬움이 남는

것은 아마도 지리학 전공교수에게 학문은 단지 삶의 수단이라기보다 삶의 목적이요, 대학은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의 장이었기 때문인 것 같다. 정년퇴직은 학자로서 교수의 학문적 정체성을 박탈하고, 이 정체성이 구현되는 장소로서 연구실을 떠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 II.

사실 나는 대학교 지리학과 학생시절에는 지리학에 대한 정체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의도하지 않게 지리학과를 들어왔다는 불만으로 지리학 전공수업은 거의 빼먹었고, 당시 혼란스럽고 억압적인 사회정치적 상황을 타하면서 ‘학생운동’에 더 열심히 쫓아다녔다. 지리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구체적인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지리학에서 어떤 깊이 있는 이론이나 철학을 찾기 어렵다고 막연히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다 학부 때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서 대학원 지리학과로 진학하게 되었고, 석사를 졸업한 후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영국 유학을 떠나기 전에 번역했던 하비(D. Harvey)의 〈사회정의와 도시〉는 지리학에서도 새로운 이론적, 철학적 기반을 찾을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영국 유학 동안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했던 인간주의와 구조주의 지리학 문헌들은 지리학과 관련된 많은 사회이론이나 철학들에 대한 나의 관심을 충족시켜 주었다. 학위논문은 이러한 지리학 내 문헌들에서 나아가 사회이론과 철학 일반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공간과 도시, 지역 등에 관한 논의들로 채워질 수 있었다.

지리학에 대한 나의 정체성은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굳건해 졌지만, 유학을 끝내고 귀국한 후 상당 기간 동안 국내 지리학계에 쉽게 조응하지 못했다. 사회이론과 철학을 통해 구축된 나의 지리학적 정체성은 기존 지리학계에서 번번이 거부되거나 무시되었다. 그러나 지리학에 대한 이러한 나의 정체성은 당시 지리학 및 유관 학문분야들에서 (나의 대학 학부시절처럼) 방황하고 있던 젊은 연구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촉발했고, 소집단 학술모임활동을 통해 뿌리를 내리고 확산될 수 있었다.

그 이후 이 모임은 학회로 발전하여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동계 학술지를 출간하고 있으며, 그 구성원들도 대학 교수 및 여러 관련 연구원이나 정부기관들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제 지리학에 대한 나의 정체성은 단지 학계 내에서 단순히 소수집단의 입장이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인정하는 개념으로 일반화되었고 할 수 있다. 삶의 수단, 즉 직업으로서 지리학과 교수가 아니라 삶의 목적으로서 지리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고자 했던 꿈이 나름대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 III.

앞으로도 이러한 지리학 정체성을 견지하면서, 지리학적 연구를 계속해 볼 생각이다. 연구해 보고 싶은 주제는 ‘소외’의 문제이다. 이 주제는 해겔과 맑스에서 르페브르와 그 외 많은 이론가들의 논의를 거쳐 최근 하비의 연구에도 상당히 심도 있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한 연구가 사회이론이나 철학 전반으로 확장될지라도, 나는 여전히 지리학에 기반을 둔 연구를 하고 싶다. 그리고 기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불균등발전이나 도시문제, 그리고 생태환경과 다문화공간에 관한 문제들 외에도, 금융화에 따른 공간환경의 재편 문제에 관해서도 연구해 볼 생각이다.

이러한 연구들에 대한 욕심이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여건이 허용되는 한 노력해 볼 생각이다. 물론 퇴직을 즈음한 많은 교수들이 퇴직 후에도 연구를 계속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지만, 대부분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하비는 65세가 지난 2000년 이후에 더 많은 저서들을 출간했고, 르페브르는 70세를 넘겨서 역작 〈공간의 생산〉을 출간했으며 그 이후에도 왕성한 연구활동을 지속했다.

정년퇴직 이후 연구 여건은 한편으로 다소 좋아 질 것이다. 강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을 것이고, 연구주제가 주어지지 않거나 연구 업적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는 훨씬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에 관한 최소한의 강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 추동력을 얻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또한 노년의 건강이나 가정 여건도 꼭 연구에 우호적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획한 연구를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는 연구자의 학문적 정체성과 관련된다고 하겠다. 학문으로서 지리학에 대한 정체성과 이를 통한 사회발전에 대한 욕구가 강할수록,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추동력이 더 강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비례 관계는 퇴직한 연구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학교수들과 연구자들에게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자신의 학문에 대한 더 큰 정체성과 연구에 대한 자긍심은 연구자 개인에게 진정한 보람을 주고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추동하는 힘이 될 것이다.

## 2019년도 1차 상임이사회

- 일시: 2019년 1월 25일(금), 14:30-18:00
-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303호
- 안건: 신입 임원 상견례 및 부서별 1년 업무 계획 논의



## 34대 대한지리학회 임원(2019~2020년)

|                      |                |           |
|----------------------|----------------|-----------|
| 회장                   | 이용우(국토연구원)     |           |
| 부회장                  | 최재현(건국대)       | 강병수(부산남고) |
|                      | 이영아(대구대)       |           |
| 감사                   | 이정훈(경기연구원)     | 정희선(상명대)  |
| 편집위원장                | 임석희(대구대)       |           |
| 총무이사                 | 진종현(공주대)       | 최진무(경희대)  |
|                      | 이정섭(경상대)       |           |
| 학술이사                 | 이승철(동국대)       | 전병운(경북대)  |
|                      | 김화환(전남대)       |           |
| 국제이사                 | 정현주(서울대)       | 박선엽(부산대)  |
|                      | 이종호(경상대)       |           |
| 홍보이사                 | 김영훈(교원대)       | 박지훈(공주대)  |
|                      | 신혜란(서울대)       |           |
| 편집이사                 | 이자원(성신여대)      | 오충원(남서울대) |
|                      | 임은진(공주대)       |           |
| 지리연구소장               | 김용창(서울대)       |           |
| 지리연구실장               | 변필성(국토연구원)     |           |
|                      | 손학기(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                      | 정수열(상명대)       |           |
| 지리학발전위원회<br>위원장      | 남기범(서울시립대)     |           |
|                      | 박정재(서울대)       |           |
| 지리교육특별위원회<br>위원장     | 정성훈(강원대)       |           |
| 지리올림피아드<br>추진위원회 위원장 | 이영아(대구대)       |           |

## 2019년도 2차 상임이사회 및 1차 이사회

- 일시: 2019년 3월 22일(금), 15:00-17:00
- 장소: 용산역 ITX회의실(특실)
- 안건: 위촉장 수여, 고문(이승호 전임 대한지리학회장) 승인, 편집위원장(임석희 대구대 교수) 승인, 신입회원 승인, 2018년

결산 승인, 2019년 예산 승인, 편집위원회 예결산 승인, 회장차수(32대→34대)변경 승인, 부서별 업무보고, 기타 논의

### • 이사 소개

|     |           |     |           |
|-----|-----------|-----|-----------|
| 강영옥 | 이화여대      | 이간용 | 공주교대      |
| 구동희 | 부산대       | 이경한 | 전주교대      |
| 구자용 | 상명대       | 이상율 | 대구가톨릭대    |
| 권정화 | 한국교원대     | 이상일 | 서울대       |
| 기근도 | 경상대       | 이승욱 | 카이스트      |
| 김선기 | ㈜푸른길      | 이용균 | 전남대       |
| 김선배 | 산업연구원     | 이우평 | 인천 부광고    |
| 김오진 | 제주 추자중    | 이의한 | 강원대       |
| 김종근 | 동북아역사재단   | 이지선 | 한국교통연구원   |
| 김진석 | 전북연구원     | 이현주 | 한국토지주택연구원 |
| 김태호 | 제주대       | 임은선 | 국토연구원     |
| 노영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장영진 | 한국교원대학교   |
| 류연택 | 충북대학교     | 정치영 | 한국학중앙연구원  |
| 문미성 | 경기연구원     | 조남제 | 옥션        |
| 박숙희 | 한국여성지리학자회 | 조대현 | 가톨릭관동대    |
| 박지만 | 국토정보공사    | 조성욱 | 전북대       |
| 백선헌 | 서울연구원     | 조철기 | 경북대       |
| 서봉만 | 인천연구원     | 조혜영 | 한국산업단지공단  |
| 안영진 | 전남대       | 최영은 | 건국대       |
| 오정준 | 대구대       |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
| 윤영수 | 백악미술관     | 홍금수 | 고려대       |
| 윤정현 | 태릉고       | 황상일 | 경북대       |



## 대한지리학회 새로운 회장임기와 차수변경

지난 3월 22일 열린 1차 이사회에서 대한지리학회 집행부 차수를 32대에서 34대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한지리학회 70년사> 발간과정에서 신중한 고증을 거쳐 차수와 관련된 오류를 정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학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새로 변경된 차수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새로운 회장임기와 차수에 대한 수정표입니다. 앞으로 대내외의 공지사항, 대한지리학회지 등의 학회출판물, 향후 기록물 등에 아래의 수정 표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용우 회장



님과 임원진은 제34대 대한지리학회 회장 및 임원진임을 알려드립니다.

| 회장      | 임기              |
|---------|-----------------|
| 1대 김도태  | 1945.9~1950.4   |
| 2대 김도태  | 1950.5~1955.10  |
| 3대 최북현  | 1955.11~1957.10 |
| 4대 이봉수  | 1957.11~1959.10 |
| 5대 이봉수  | 1959.11~1961.8  |
| 6대 박노식  | 1961.9~1964.5   |
| 7대 이지호  | 1964.6~1966.5   |
| 8대 이지호  | 1966.6~1968.6   |
| 9대 강석오  | 1968.7~1970.5   |
| 10대 노도양 | 1970.6~1972.5   |
| 11대 이 찬 | 1972.6~1974.5   |
| 12대 이 찬 | 1974.6~1976.5   |
| 13대 형기주 | 1976.6~1978.5   |
| 14대 형기주 | 1978.6~1980.9   |
| 15대 서찬기 | 1980.10~1982.5  |
| 16대 황재기 | 1982.6~1984.5   |
| 17대 홍순완 | 1984.6~1986.6   |
| 18대 조동규 | 1986.7~1988.6   |
| 19대 장보웅 | 1988.7~1990.12  |
| 20대 박영한 | 1991.1~1992.12  |
| 21대 권혁재 | 1993.1~1994.12  |
| 22대 김일기 | 1995.1~1996.12  |
| 23대 이현영 | 1997.1~1998.12  |
| 24대 허우금 | 1999.1~2000.12  |
| 25대 이기석 | 2001.1~2002.12  |
| 26대 박삼옥 | 2003.1~2004.12  |
| 27대 이정록 | 2005.1~2006.12  |
| 28대 이민부 | 2007.1~2008.12  |
| 29대 권용우 | 2009.1~2010.12  |
| 30대 이철우 | 2011.1~2012.12  |
| 31대 손 일 | 2013.1~2014.12  |
| 32대 양보경 | 2015.1~2016.12  |
| 33대 이승호 | 2017.1~2018.12  |
| 34대 이용우 | 2019.1~2020.12  |

## 2019년 대한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 1. 일정

- 일시: 2019년 6월 21일(금)
- 주최: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주관: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
- 후원: 경북대학교
- 장소: 경북대학교 글로벌 플라자(GP)
- 참가비: 30,000원

### 2. 논문 및 포스터 발표

- 논문발표는 관례대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며 포스터 세션

도 열릴 예정입니다.

- 신청서 제출기간: 2019년 3월 15일(금)~5월 17일(금)
- 제출방법: 대한지리학회 홈페이지 → '2019연례학술대회' → '신청서제출'
- 논문초록 제출기간: 2019년 4월 1일(월)~5월 31일(금)
- 제출방법: 대한지리학회 홈페이지 → '2019연례학술대회' → '초록제출'
- ※ A4 size 2매 (원고분량을 가급적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 초록집은 가능한 별도 편집하지 않고 인쇄될 예정이오니 제출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3. 학술대회 관련 문의

- 대한지리학회 사무실 ☎ 02-875-1463;  
e-mail: geography77@hanmail.net, 황선영 사무장
- 대한지리학회 학술이사 ☎ 02-2260-3402;  
e-mail: leesc@dongguk.edu, 이승철 교수
- 대한지리학회 학술이사 ☎ 053-950-5231;  
e-mail: bwjun@knu.ac.kr, 전병운 교수
- 대한지리학회 학술이사 ☎ 062-530-2688;  
e-mail: h2kim@jnu.ac.kr, 김화환 교수

## 2018년 제19회 전국지리올림피아드

### 가. 지역 대회

#### (1) 대회 개요

- 주최: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 국토연구원
- 주관: 각 시·도 해당 대학, 전국지리교사연합회 해당 지회
- 후원: 각 시·도교육청
- 대회 장소

| 지역    | 장소            | 지역 | 장소             | 지역 | 장소            |
|-------|---------------|----|----------------|----|---------------|
| 서울    | 한강중학교<br>(서울) | 대전 | 대전대학교<br>(대전)  | 충북 | 충북대학교<br>(청주) |
| 부산    | 부산대학교<br>(부산) | 울산 | 약사고등학교<br>(울산) | 충남 | 공주대학교<br>(공주) |
| 대구/경북 | 경북대학교<br>(대구) | 세종 | 한솔고등학교<br>(세종) | 전북 | 전북대학교<br>(전주) |
| 인천    | 경인교대<br>(인천)  | 경기 | 경희대학교<br>(서울)  | 경남 | 경상대학교<br>(진주) |
| 광주/전남 | 전남대학교<br>(광주) | 강원 | 강원대학교<br>(춘천)  | 제주 | 제주대학교<br>(제주) |

\* 대회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즉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 (2) 추진 일정

- 참가 신청: 2019년 4월 15일(월)~5월 3일(금)
- 대회 일시: 2019년 5월 11일(토) 14:00~15:00
- 입상자 발표: 2019년 5월 15일(수)

## 나. 전국 대회

### (1) 대회 개요

- 주최: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 국토연구원
- 주관: 전국지리올림피아드 특별위원회, 전국지리교사연합회
- 대회 장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2) 추진 일정

- 참가 신청: 2019년 5월 20일(월)~6월 7일(금)
- 대회 일시: 2019년 6월 15일(토) 14:00~15:20
- 입상자 발표: 2019년 6월 18일(화)
- 시상식: 2018년 6월 22일(토) 14:00

## 국제학술대회

### <1월>

ASPRS Annual Conference, 2019.1.28.~30 @Denver, USA.

### <4월>

- AAG Annual Meeting: 2019.4.3~4.7 @Washington DC, USA.
- 2019 European Geosciences Union (EGU), General Assembly, 2019.4.7.~4.12 @Vienna, Austria
- International Symposium of Remote Sensing, 2019.4.17.~19 @Taipei, Taiwan

### <7월>

- ICC2019(세계지도학대회) (<http://www.icc2019.org>): 2019.7.15.~7.20 @Tokyo
- IGARSS 2019(IEEE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Society): 2019.7.28.~8.2, @Yokohama, Japan

## 제15회 남계논문상 공모

대한지리학회에서는 남계 형기주 교수님(동국대 명예교수)께서 지리학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기증하신 기금으로 2003년도부터 박사학위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남계논문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남계논문상 시상을 위한 심사대상 논문을 공모합니다.

- 다음 -

1. 대상논문: 국내 각 대학 대학원 지리학과와 지리(교육)전공, 사회와 교육(초등관련), 공통사회와 지리전공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2017년도 2월과 8월에 취득한 모든 박사학위논문
2. 제출기한: 2019년 4월 30일(화)
3. 제출서류: 요약서 7부(5쪽 이내) / 학위논문 7편
4. 접수장소: 학회사무실 (04376)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 213-12, 1413호(한강현대하이엘)

## 신규임용

### 이강원(서울대학교 지리학과)

- 연구분야: 중국, 역사지리, 정치생태학
- 경력  
2002~2019 전북대학교 교수
- 학력  
1986~199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졸업(문학사)  
1991~1993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과정 졸업(문학 석사)  
1993~2000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과정 졸업(문학 박사)



### 이은결(경희대학교 지리학과)

- 연구분야: 기후학, 환경지리학
- 경력  
2019.09~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부교수  
2011.12.~ 현재 2019.08 West Virginia University, Department of Geology & Geography 조교수/부교수  
2010.10~2011.12 Lehigh University, Department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Postdoctoral Research Associate  
2008.01~2010.09 Center for Sustainability and the Global Environment,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Postdoctoral Research Associate
- 학력  
1996.02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학사  
1998.02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석사  
2007.12 University of Colorado-Boulder 지리학과 박사



### 최서희(경희대학교 지리학과)

- 연구분야: 문화지리학, 관광지리학
- 경력  
2019.04~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조교수  
2013.08~2019.03 마카오 관광대학 조교수  
2011.09~2013.07 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 연구원  
2008.03~2008.07 중국 루둥(魯東)대학 강사  
2006.07~2007.03 경기연구원 위촉연구원
- 학력  
2003.08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학사  
2006.08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  
2011.12 Purdue University,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박사



## 회원 동정

###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주성재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에 임명되었다. 임기는 3년(2019.2~2022.2)이다. 동북아 역사재단은 동북아와 세계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잘못된 역사관과 그로 인해 야기된 문제점을 직시하고 종합적 연구 분석과 전략적인 정책 개발을 수행하여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설립된 재단이다.



###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지상현 교수

2018학년도 경희 Fellow(교육부문)에 선정되었다. 경희 Fellow는 연구업적이 우수한 교수를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로 학문적 성취를 존중하는 대학문화를 만들고 구성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08년도에 도입되었다.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김대현 교수

미국 지리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Geographers) 생물지리학분과(Biogeography Specialty Group)의 새 분과장(chair)으로 선출되었다. 2019년 4월 미국 지리학회 중에 열리는 생물지리학분과 총회부터 2년 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 부고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노시학 명예교수 모친상 2019. 2. 11.

## 신입회원(2019. 3. 22. 이사회 승인)

|      |                                                                                                                     |
|------|---------------------------------------------------------------------------------------------------------------------|
| 일반회원 | 강남희(대구중학교), 황태건(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김지영(한국학중앙연구원), 한장원(연세대학교), 임용호(국토연구원), 김수진(국토연구원), 이무영(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신진숙(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 학생회원 | 진초혜(남경대학교), 조원호(서울대학교 지리학과)                                                                                         |
| 단체회원 | 아이시티웨이(ICTWAY)                                                                                                      |

## 회비 안내

###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안내

- 정회원: 50,000원(가입비 10,000원, 연회비 40,000원)  
(석사 재학 중인 2년간은 학생회원으로 연회비 20,000원임. 단, 재학증명서 첨부)
- 단체회원: 90,000원(가입비 10,000원, 연회비 80,000원)

### 학회비 납부 방법

- 국민은행계좌(841-25-0006-810, (사)대한지리학회)  
\* 본인의 이름으로 납부하여야 처리될 수 있음.
- 카드 전화승인(국민, 신한, 삼성, BC카드에 한함)  
☎ 02) 875-1463

## 전문학회와 교사모임 소식

### 문화역사지리학회

#### 제147차 정기학술 세미나 및 임시총회

- 일시: 2019년 3월 16일(토) 14:30-17:0
- 장소: 대우재단빌딩 7층 제 2세미나실(지하철 1호선 서울역 8번출구에서 100미터, Seoulllo Terrace 빌딩)
- 발표:
  - 주은우(중앙대 사회학과) “쇼와 천황의 사진 이미지 변화에 관하여”(14:30-15:30)
  - 휴식(15:30-15:50)
  - 김기혁(부산대 지리교육과) “〈대동여지도〉 판본으로 본 19세기 조선 지도의 층리”(15:50-16:50). 정년기념특강
- 임시총회

### 전국지리교사연합회

#### 2018년 제22회 전국지리교사대회

- 주제: “千年古都 경주에서 地理를 만나다.”
- 일시: 2019년 1월 4일(금)~1월 5일(토), 1박 2일(합숙)
- 장소: 경주 일원, The-K호텔경주(경상북도 경주시 엑스포로 45)

### 전국지리교사모임

#### 2019년 제4회 지리사진전 개최

- 전시명: 섬, 다름을 마주하다
- 일시: 2019년 2월 7일(목)~2월 11일(월) 11:00-20:30
- 장소: 세종문화회관 광화랑

## 호야지리박물관

### 지도로 읽는 '한국 영토 '독도' 특별전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일의 지리테마 전문박물관인 호야지리박물관에서는 지난해 서울(예술의 전당)과 대전광역시(대전대 박물관)에서 개최한 「지도로 읽는 한국영토, '독도」 특별전시회를 관람하신 분들로부터 매우 큰 관심과 격려를 받는데 힘입어 올해에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무료로 공동전시회를 열어 드리고자 공모합니다. 올해 총 10회 순회전을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세종특별자치시 「국토연구원」에서 제1회 순회전(2.28~3.15, 주제: 3.1운동

100주년 기념 지도로 읽는 한국영토 독도)에 이어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독도전시관에서 제2회 순회전시가(3.18~4.15) 열린바 있습니다. 10월에는 한 달 동안 한국 「교원대학교」 독도의 날 기념 순회전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기간: 2019년 3월~12월 말(1회 15~30일, 10회 내외 예정)
  - 장소: 각 신청 기관이 지정한 장소(총 전시 면적은 약 50평 내외 규모)
  - 전시 목록 및 내용: '호야지리박물관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 신청 문의: 호야지리박물관 양재룡 관장(010-7524-3257)
- \* 단 전시회 일정은 신청단체의 접수순에 따라 우선 배정할 예정입니다.

## 학과소식

###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건국대 기후연구소-호찌민 베트남 국립대학교 지리학부와 연구협력 MOU 체결

건국대학교 기후연구소(소장 이승호 교수)는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잠재적인 식량자원 교역국가가 될 수 있는 남부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베트남, 파키스탄, 인도, 말레이시아 등)의 연구기관과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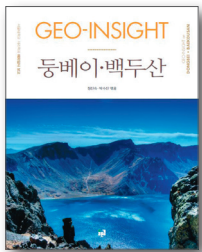
이를 위해 기후연구소는 지난해 8월에 파키스탄 편잡대학교와 MOU를 체결한 데 이어, 2019년 3월 호찌민 베트남 국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

manities,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City) 지리학부와 연구협력 MOU를 체결했다.

기후연구소 이승호 소장은 2018년 11월 호찌민 국립대학교를 방문하여 LE Thanh Hoa 학장과 면담하고 두 기관 간 활발한 연구협력과 교류(상호 관심 분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워크숍 및 세미나, 학술 및 연구 자료의 교환, 학생 교류 등)를 협의했다. 현재 기후연구소는 호찌민 베트남 국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지리학부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추진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로 공동 답사와 공동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 새로 나온 지리학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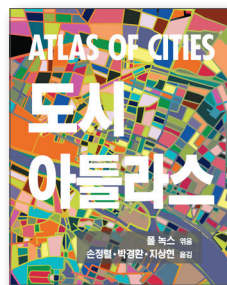
### GEO-INSIGHT 동베이·백두산



정진숙·박수진 엮음, 2019, (주)푸른길

『GEO-INSIGHT 동베이·백두산』은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서 동베이와 백두산을 답사한 후 남긴 작품이다. 지리학과에서는 답사 후 늘 자료집을 만들어 왔는데, 소중한 자료집이 잊히는 게 아쉬워 잘 다듬고 모아 단행본으로 출간하게 된 것이다. 서울대 지리학과 답사팀은 다롄(大連)팀, 창춘(長春)팀, 블라디보스토크팀으로 나뉘서 세부전공이 다른 대학원생들을 배치하였고, 마지막에 열다오바이허(二道白河)에서 만나 같이 백두산에 등반하는 코스를 짰다. 도시계획, 지역개발학, 자연지리, 문화지리학, GIS 등의 전공자들이 총출동했다. 덕분에 이 책에서 독자들은 지리학 세부전공의 향기를 어렵잖게나마 느껴 볼 수 있다.

### 도시 아틀라스



손정렬·박경환·지상현 옮김, 2019, (주)푸른길

『도시 아틀라스』는 2014년 미국지리학회(AAG)에서 수여하는 Globe Book Award를 수상한 ATLAS OF CITIES를 완역한 책이다. 이 책은 도시를 분류하는 독창적인 방식을 소개하면서 이들 도시의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및 정치적 구조의 다양한 측면, 도시들 간의 그리고 도시와 배후지들 간의 상호작용, 도시들이 드러내는 도전과 기회, 장래에 이들 도시가 나아갈 방향 등을 관찰하고 있다. 너무 알지도 깊지도 않은 깊이와, 많지도 적지도 않은 분량, 적절한 내용에, 장 정도 좋아서 도시 연구서로서는 완벽한 스펙을 갖추었다. 도시를 알아 가려는 시도에 이 책만큼 든든한 동반자는 없을 것이다.